참가치 찾으면 자신만의 길 걸을 수 있어

어른의 공식

장옌 지음
정이립 옮김
불광 펴냄
1만5천원

이 책에는 인생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 이야기 77편이 담겨 있다. 상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생과 정면 승부해 자기만의 색깔로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말과 행동들도 때론 등장한다. 하지만 선입견을 단박에 부수는 반전을 통해 선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 지고, 진정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늘 그렇듯 인생의 해법은 우연한 곳에서 운명처럼 마주친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도 어떤 독자에게 '인생을 바꾼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을 마주하는 순간, 번쩍하는 깨달음이 분명 당신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당나라때의 단하 선사가 낙양 혜림사에 묵을 때 이야기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단하 선사는 전각에 있던 나무 불상을 가져다 쪼갠 뒤 불을 지폈다. 이 사실을 안 주지 스님이 단하 선사에게 화를 냈다. "이런 불경스런 짓을 저질렀으니 자네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걸세."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단하 선사는 오히려 태연했다. "저는 사리를 얻기 위해 부처님을 불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더 큰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인가? 나무 불상에 어떻게 사리가 들어 있단 말인가?" 단하 선사는 웃으며 답했다. "기왕 그렇다면 제가 나무 불상 두 개를 더 가져다 불을 지펴도 될까요?"라고.

남과 다르게 자기의 길을 열고 싶다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혼돈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

단하 선사의 일화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남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치워 버리고 '진짜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찾아낸 것을 과감히 실천하는 결단력과 행동력,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일지도 모른다.

당나라때 인물인 육긍 대부와 남천 선사의 일화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준다. 어느 날 육긍 대부가 남천 선사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늘곤 하던 돌로 불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남천 선사가 답했다. "가능합니다." 그러자 육긍 대부는 마음을 놓지 못

예술적 경지 이끈 선사시야기 77편
눈치보지말고 당당히 사는법 소개
지나친 집착은 인생의 큰 방해요소

하고 다시 물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곧바로 남천 선사가 다시 답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남천 선사는 왜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불상을 만들고 못 만들고를 결정하는 건 돌보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설사 육긍 대부가 가장 좋은 재질의 돌을 가졌더라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돌로 불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육긍 대부'의 자리에 아무나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 과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의지를 다잡지 않고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 외부의 조건들이 우리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판단될 때, 정말로 손발을 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중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사람들, 사사로운 감정서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등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나 자신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각 장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마음이 가는 부분을 먼저 펼쳐 보는 것도 이 책을 공략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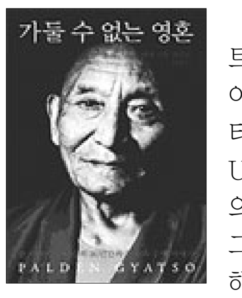
만일 자신감이 없어 자기 의견을 입속으로만 되뇐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1장을 읽고 줏대 있는 삶을 살아갈 의지를 다지자. 마지막으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끝장인 제 8장을 읽고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법을 익혀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영혼까지 속박할 수 없다

가둘 수 없는 영혼

팔덴 갸초 지음 | 정희재 옮김 | 르네상스 펴냄
1만8천원



팔덴 갸초는 티베트 최장기수 정치범이었고, 고통받는 티베트의 현실을 UN서 증언한 최초의 티베트인이다. 그는 열 살 때 출가해 한창 수행에 정진해야 할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중국 정부에 체포돼 예순이 돼서야 풀려났다. 그는 31년 동안 끝없는 고문, 굶주림, 강제노역, 사상 교육을 겪어야 했지만 생에 대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희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티베트인을 잡아들이고, 티베트 고유의 문화를 파괴했다. 팔덴 갸초에게는 인도인 스승을 스파이로 고발하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승과 영혼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대가는 무자비했다.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족쇄를 몇 년 동안 발목과 손목에 차고 있어서 나중에 수갑을 풀고도 한참 동안 팔과 다리가 마비돼 움직이지 못했다. 전기봉 고문으로 이가 몽땅 빠지기도 했다. 간수들의 혹독한 구타는 일상이었다. 폭행을 당하고 나면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무수한 상처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팔덴을 비롯한 티베트인 양심수들은 중국 당국의 잔인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폭력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이렇게 말한다. "잔인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희생자가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없다. 인간의 몸은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도 회복할 수 있다. 육체에 난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된다. 그러나 영혼은 한번 파괴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낙담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념과 티베트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믿음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진보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한 체제가 저지른 만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티베트인 3분의 1이 죽었고, 6천여 개의 사원이 파괴당했다. 15만 명 이상의 승려들이 강제로 환속당하거나 감옥이나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한때 숨어 있는 이상향으로 불리던 티베트는 그렇게 파괴되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와 전통은 모두 무너졌고, 대부분 유목민이던 티베트 사람들을 동원해 지질에 맞지 않는 농사를 강요한 결과 굶주림과 가난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점령하고 난 뒤 티베트의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티베트 관련서는 달라이 라마나 신비한 이상향, 혹은 명상과 깨달음에 관한 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국내에 처음으로 티베트인의 목소리로 티베트의 아픔과 현실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 한 승려의 기구한 자서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티베트 망명자들이 하나씩 전하던 티베트의 현실이 집대성된 역사적인 자료집을 겸하고 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권유로 탄생하게 되었다. 조국을 떠나온 티베트 사람들이 다 그렇듯 팔덴 갸초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망명한 뒤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의 삶을 글로 남겨 티베트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라고 권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심과 자비를 잃지 않고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이다. 그 동정과 자비는 고통받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티베트 정치범으로 31년 복역
고문과 폭력 등에 끝까지 항거
달라이라마 권유로 집필 결심

아니다. 고통을 주는 자도 용서해야 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실. 단지 특별한 상황이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의식중에 깨닫게 한다. 그래서 중국인 대 티베트인이라는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폭력과 증오의 유혹에 휩싸이기 쉬운 인간성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어떤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팔덴 갸초처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한다. "팔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만은 않으며, 개개인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자유로웠다.

김주일 기자

저자 **팔덴 갸초**는?

팔덴은 1933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빠남이라는 마을서 태어났다. 열 살 때 출가해 승려가 됐고, 20대에 중국 침략을 목격하며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다.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체포와 고문, 굶주림, 강제노역, 사상교육과 같은 고난에도 스승과 영혼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지켜왔다. 팔덴은 중국의 티베트 침략에 맞서 저항하다가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92년 감옥서 풀려나자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탈출한다.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실상을 전한다. 달라이 라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권한다. 이 책은 이렇게 해서 탄생됐다. 팔덴 갸초는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산다.

체험으로 쓴 간화선 수행의 실제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 무이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간화선 즉, 화두를 참구해 참다운 성품을 깨닫고 마음의 해탈을 얻는 참선수행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는 법을 기술했다.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이란 부제가 말하듯, 마음공부를 통해 '참나'를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안심(安心)을 얻고 대자유인으로서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친절히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인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제 1장 평상심의 일상, 제 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修行)의 실제, 제 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부록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 줄 '밑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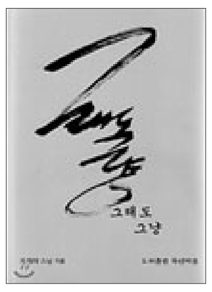
저자는 이 배에 오르는 모든 인연들이 불조의 호념(護念) 속에서 '구멍 없는 피리소리'를 듣고 '줄 없는 거문고'를 탄주하며 한 송이 우담바라로 활짝 피어나길 간절히 서원하고 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한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마음 치유해 주는 선시 한데 묶어

그래도 그냥

지개야 지음 | 묵언마을 펴냄 | 9800원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는 지개야 스님이 두 번째 시집을 펴냈다. 제목은 〈그래도 그냥〉이다. 부제도 재미있다. '또하는 허튼 소리'이다. 지난 2009년 첫 시집 〈지개야 백팔번뇌 잠언시〉를 펴낸 이후 5년 만이다.

스님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자살'에서 그 반대인 '살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칠장리에 있는 묵언마을에서 활동중이다. 스님의 출가 동기도 자살자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위기에서 희망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낸 이가 족히 2백명은 넘는다. 그러니 스님은 출가해서 성공한 셈이다.

이 책은 시심을 옮긴 시집이라가 보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종의 잠언 형식이다. 가령 "그냥 행복에 미소만 짓지 말고 행여나 찾아올 고뇌를 맞이해 이길 수 있는 인욕을 준비해라" "온 힘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나를 찾지 않는단다"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덕을 베풀면서 살아라" 등등이다. 마음이 힘들때마다 곁에 두고 펼쳐 읽으면 위안이 되는 선법문들이 가득하다. 한편 지개야 스님은 이 책의 판매 대금을 자살예방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위빠사나, 실재 알아차리는 수행

좋은 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묘원 지음 | 행복한 숲 펴냄 | 1만원

'좋은 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위빠사나 문고 옹달샘 5편으로 한국 명상원 게시판 옹달샘 글을 모은 책이다. 옹달샘은 2004년 9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연재되고 있으며, 매일 한국 명상원 회원에게 인터넷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실린 옹달샘의 글을 모두 모은 것이다.

옹달샘의 글은 위빠사나 수행의 잠언이다. 저자는 매일 같이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을 옹달샘의 글로 기록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은 일상의 삶을 모두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상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닌 실재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므로 저자의 관점도 관념이 아닌 실재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통찰하고 있다. 그래서 옹달샘 글은 일반적 시각이 아닌 출세간의 범주에서 본 시각이다.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서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므로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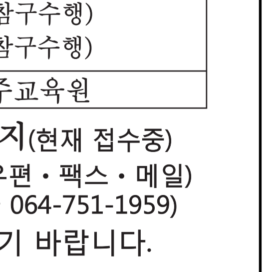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님의 향기처럼…

엄동의 한설이 날개를 접고 봄의 신령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2013년 10월 31일 개원한 전국 38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동명세계선센터에서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선으로 힐링하며,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선수행 학교 1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스님의 직접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일 시	2014년 3월 6일부터 4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도 및 강의	수진스님 (범어사 율학대학 원장 · 선센터 선원장)
대 상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 선센터 (동명관 4층)
수 학 료	4개월(10만원) ※ 개근상(수진스님 친필 한폭)
접 수	☎ 051)629-3582, 전송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